

일곱째 주; 성령의 인도 하심

오늘은 가장 dynamic 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른 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등등입니다.
eg. 기도하고 성경을 연다. 예언 기도를 받는다 등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58 : 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영혼의 축복 :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건강의 축복 :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밤사의 축복 :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천년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오늘날 인도하신다는 걸까요?

II.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어집니다.

1. 주권적인 뜻(Sovereign Will of God) -

이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일부로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4:35 땅의 거민을 없애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우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우주의 종말을 언제로 정하셨든가, 국가의 흥망성쇠, 그 집권자를 세우고 일으키심, 사람의 생사화복 등-- 우주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일부로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악한 일 모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성경에는 역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지자나 사도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사도행전 12: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사도행전 12: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역사속에 묻혀질 평범한 사건이나, 사도 행전을 기록한 기자의 영감적 해석(Inspirational Interpretation)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침으로 인해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신약의 신자에겐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선지자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단정적인 예언적 해석을 하면 않습니다. 이런 역사 사건에 대한 선지자적 해석은-**특별 영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는 아무도 역사 사건에 대해 이런 선지자적 예언적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영감 :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포하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영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한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이미 기록이 완성된 성경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석을 하고 인도를 받을 따름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인도를 받는 것으로 그칩니다.

우주의 종말을 언제로 정하셨는가, 혹은 국가의 흥망 성쇠, 사람의 생사 문제등,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속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일부로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2. 도덕적인 뜻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 도덕적 명령입니다. 신자는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도덕적 명령은 모세의 율법 안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신약의 율법에 있습니다. 신자는 이 명령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범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는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넘어가는 사업을 벌려놓고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술가게, 유흥업소,--등) 우리 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놀음, 기타 투기성을 갖는 세속적인 오락이나 유흥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민수기 9 : 15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민수기 9 :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수기 9 :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 : 1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민수기 9 : 19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민수기 9 : 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민수기 9 :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민수기 9 :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민수기 9 :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A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they rested in the tents, and a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they journeyed: they kept the charge of the Lord, a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by the hand of Moses.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 갈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행군을 계속했고,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일년이고 유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그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민수기 9 :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며,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이 세워진 후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의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생하여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기 시작할 그 때부터 성령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 63;14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개인의 간증을 듣는다>

나는 버터월드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어느 젊은 맞벌이 하는 부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어느 retire 한 노부부가 “지금 계신 그 집은 맞벌이하는 부부 집이라 불편하실테니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어떠냐” 고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월드 박사는 그 노부부의 요청이 매우 타당성이 있어 따르고 싶었지만 기도 후에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Rhema 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눅 10:7)” 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부부에게 말하길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께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그냥 이 집에 계속 유하겠다.” 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기도 전에 그 노부부가 사는 district 에 발진티푸스가 발생하여 그 지역은 통행이 금지되어, 만약 버터필드 박사가 그리로 갔었다면 부흥회는 중단될수 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힐튼 호텔의 주인 힐튼씨는 본래 호텔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파 연극단을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유랑하는 유랑 극단의 대표자였습니다. 어느 겨울, 파산하여 단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는 주린 배를 움켜잡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여관업을 해보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는 나가 동업자를 구하여 모텔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힐튼 호텔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렘 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지혜의 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길,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III.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2 : 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현재의 삶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약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나요?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2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이 짧은 구절안에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일하신다 - work in you) ;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둘째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인격이 존중된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며, 물리적 방법이나 로봇트화하여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방법 : work in you 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다같이 빌 2:13 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2 :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우리는 여기서 work in you 의 Work 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energon* 을 번역한 말인데, energize 의 의미입니다. 즉 ‘활기를 돋운다’ 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터에 전압을 가하면 모터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가하셔서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자극되어 힘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energon 의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Idea 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셔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소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원이 옛사람에서 기원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에베소서 2:3). 그래서 육체의 욕심인지 성령이 주신 소원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소원이 옛사람에서 온 것인가 새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소원이 옛사람에서 온 것인가 새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성령의 조명(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¹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신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에 의해 신자는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주는데 까지 확장됩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 사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6 :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든든한 진리의 반석위에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

1. 계시(Revelation)는 감추어진 것을 들어 내는 것으로 재료(Material of Scriptures)에 중점을 두는 말이고, 영감(Insperation)은 계시를 받은 자를 감독 관리(superintend)하여 계시를 오류없이 기록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까지 통달(말씀 조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10 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사역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내적 조명)를 또한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 1:9 에서

“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 :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함으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 :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 :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찢러 쪼갬다” 고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 사역은 여러분과 나의 내면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를 환하게 비추어, 심령과 골수를 찢러 수술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육성(Carnality)이 성령의 조명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의 깊은 이해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옛사람에게 기원을 둔것인가? 아니면 성령에게서 기원한 것인가를 분별못할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뜻이 분명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48 : 14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73 :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축복과 강건의 축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의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그는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 자신을 책업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시어 당신의 삶을 항상 인도 하여 주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